

星山別曲 研究

崔 聖 鎭*

目 次

I. 緒 論	1. 作者考
1. 星山別曲 研究의 意義	2. 製作年代考
2. 湖南地方의 詩歌活動	3. 地名·名所考
II. 星山別曲과 그 背景	4. 內容考
1. 星山別曲과 關聯 亭閣考	IV 結 論
2. 星山別曲과 關聯 人物考	1. 星山別曲 研究의 概要
III. 星山別曲과 鄭澈	2. 星山別曲의 評價

Abstract

Seongsanbyeogok is a collection of descriptive poems expressing beautiful seasonal changes of scenery of *Seongsan*; and the comfortable life in quiet retirement of the hero, that is, his reading, convivial mood, and elegance of playing string instrument. These poems were composed, out of longing for and envy of *Kim Seong-won*, *Seohadang*, by *Songgang*.

In commenting *Songgang*'s works, all of them have been eulogized as original, creative masterpieces, epoch-making loftiest works but *Seongsanbyeolgok*. The writer, while considering the value of these poems produced in his native country, noticed that the names of places, famed spots have not been clarified, resulting in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annotating *Songgang*'s works. This motivated the writer to do this research.

The writer surveyed the activities of poems and songs in Honam area as remote causes of *Songgan*'s composition, and as direct causes, he investigated *Seongsan* poem site in *Shungyeongjeong* bower, and summerhouses concerned that served as poem sites, and visitors to these summerhouses and bowers, thus trying to find the

* 國文學專攻, 指導教授 朴沆植

significance of how those poems were produced.

Then, the writer consid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ty of *Seonggang* as a lyrical poet and his life in retirement at *Seongsan*; clarified his opinion concerning the year of composition where various opinions collide; attempted to correct ambiguous annotation coming from ignorance of the names of places and famed spots; thus hoping to contribute to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his works.

And in the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main emphaiss was placed on the plot and expression in order to reveal the value of those poems.

I. 緒 論

1. 星山別曲 研究의 意義

松江 鄭澈하면 우리나라 詩歌 中, 歌辭文學의 最高峰으로 손꼽혀, 絶讚을 받아 왔다. 그 中에서도 關東의 勝景을 노래한 關東別曲에 대해서는

關東別曲 松江所製 歷舉關東山水之美 說盡幽遐 詭怪之觀 狀物之妙 造語之奇⁽¹⁾ 信樂譜之絕調⁽²⁾ 松江 關東別曲……乃東方之離騷⁽³⁾

余以退溪漁父詞 瞻置冊中 使善歌者洪石 唱之曰 如鄭松江關東別曲 亦是絕調 汝知此意否 仍使更唱關東別曲⁽⁴⁾

이라 하여, “造語之奇”나 “樂譜之絕調” 또는 “東方之離騷”라 하여 最高의 讚辭를 아끼지 않고 있다.

戀君之思를 노래한 前後 思美人曲에 대해서는

思美人曲 祖述詩經美人二字 以寓憂時 戀君之意 亦郢中之白雪⁽⁵⁾

續思美人曲 亦松江所製 復申前詞未盡之辭 語益工 而意益切 可與孔明兩出師表伯仲者也⁽⁶⁾

松江前後思美人詞者 以俗諺爲之 而因其放逐鬱悒 以君臣離合之際 取譬於男女愛憎之間

(1) 下線은 筆者가 친 것임.

(2) 洪萬宗, 旬五志.

(3) 金萬重, 西浦漫筆.

(4) 權釋, 石洲集 別集

(5) 洪萬宗, 旬五志

(6) 同上

其心忠 其志潔 其節貞 其辭雅而曲 其調悲而正 庶幾追配 屈平之離騷⁽⁷⁾

松江關東別曲 前後美人歌 乃東方之離騷 …… 況此三別曲者 甚有天機之自發 而無夷俗之鄙俚 自古左海眞文章 只此三篇 然又就三篇 而論之則 後美人尤高 關東前美人 猶借文字語 以飾其色耳⁽⁸⁾

이라 하여 “君臣離合之際 取譬於男女愛憎之間”이니 “語益工” “辭雅而曲” “調悲而正” 등으로 表現의 工巧함과 律調의 悲正함을 激讚하고, “郢中之白雪” 或은 “可與孔明兩出師表伯仲者” “左海眞文章 只此三篇”이라 하여 最高 最大의 讚辭를 아끼지 않고 있다.

將進酒辭에 대해서도

將進酒 亦松江所製 蓋倣 太白·長吉勸酒之意 又取工部(杜甫) 總麻百夫行 君看束縛去之語 詞旨通達 句語悽惋 若使孟嘗君聞之 淚下不擔擁門琴⁽⁹⁾

이라 하여 人生의 無常함을 “句語悽惋”하게 表現하고 있다 하여 讚辭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같은 松江의 歌辭이면서도 星山別曲에 대해서는 이러한 讚辭가 없었다. 그러다가 近代에 들어오면서

“近朝 歌辭의 作品은 山積하리만큼 많으나, 그 中에서도 最高峰은 鄭松江의 思美人曲 續美人曲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松江은 短歌보다도 더 長篇歌詞의 天才였다. 星山別曲은 工巧스럽고 關東別曲은 雄壯하다.”⁽¹⁰⁾

라고 했으며,

“星山別曲은(中略) 息影亭에 모인 四仙一金成遠 林億齡 高敬命 鄭澈一이 ‘息影亭雜詠’이라 하여 同一題目 同一押韻에 지은 漢詩 二十首를 扮本으로 해서, 그것을 敷衍 或은 奪胎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嚴密히 말하자면 松江의 創意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中略) 該曲이 他 作品에 비겨 多少 等閑視되던 傾向이 없지 않으나, 기실 詩人으로서의 純粹한 生活面에서 빚어짐과 同時에 그의 個性이 比較的 豊富하게 反映되어 있다는 點 등으로 볼 때, 또한 別個의 價値를 認定치 않을 수 없다.”⁽¹¹⁾

라고 하여 李秉岐 白鐵님의 “工巧스럽다”와 金思燁님의 “別個의 價値를 認定치 않을 수 없다”程度의 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星山別曲은 내 고장에서 이루어진 歌辭다. 星山(별피)은 現 全南 潭陽郡 南面 芝谷里(俗稱 支石·지실) 마을 앞에 자그만한 三角形으로 솟아 있는 山이다. 芝谷里 지실마

(7) 金春澤, 北軒集

(8) 金萬重, 西浦漫筆 下卷

(9) 洪萬宗, 旬五志

(10) 李秉岐·白鐵共著, 國文學全史, pp 122~123

(11)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p 529~530

을은 이 별외의 西쪽 기슭 일대에 펼쳐 있으며, 지금도 松江의 後孫인 延日 鄭氏가 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별외의 西쪽 중턱 老松이 茂盛한 사이에 息影亭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뒷 竹林에 棲霞堂의 옛터가 있다. 石川 林億齡의 息影亭 廿詠과 松江 鄭澈의 星山別曲의 勝地가 바로 여기인 것이다.

星山은 現在 光州市에서 市內버스를 타고 가면 그 終點에 位置하고 있다. 市內버스를 타고 無等山莊 쪽으로 가다가 金谷里, 忠孝里, 지실로 가는 길과, 元曉寺와 山莊호텔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梨峙(배재)에 이른다. 이 고개에는 옛날 忠孝陶窯址의 原料로 쓰였던 長石과 白土가 하얗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배재에는 金忠壯公과 그 祖上의 墓所가 있는 忠壯祠가 있다. 이 忠壯祠 앞을 지나 金谷里⁽¹²⁾에 이르면, 朝鮮朝 粉靑沙器의 原產地인 忠孝洞 陶窯址로서 이 一帶에는 約 20餘個所의 가마가 散在해 있는데, 여기를 지나 金忠壯公의 出生地인 忠孝里⁽¹³⁾에 다다르면, 正祖가 將軍의 忠孝를 길이 顯彰하기 위하여 忠孝里라는 洞名을 내리고, 이것을 기린 忠孝里碑가 세워져 있으며, 金忠壯公의 生家가 保存되어 있고, 마을 앞에 樹齡 600餘年을 헤아리는 왕배들 雙巨樹가 서 있는데, 여기에서 星山の 息影亭까지는 約 250m 程度로서 息影亭이 원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옛날에는 息影亭과 環碧堂 사이에 흐르는 滄溪川에 虹橋를 가설하고, 沙村 金允梯가 그의 從姪되는 棲霞堂 金成遠과 서로 來往하였다고 傳해지고 있으나 至今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돌다리인 忠孝橋가 가설되어 있다. 이 忠孝橋를 건너면 여기가 바로 市內버스의 終點인데 光州湖의 上流로써 지실마을이 보이고, 마을 右便 높은 언덕 위에 息影亭이 그냥 咫尺之間에 바라보인다.

이러한 내 고장에서 이루어진 星山別曲이기에 남다른 關心을 안가질 수 없었고, 고장을 찾는 客들에게 星山에 대한 無知함을 보일 수가 없어서 알아보게 되었고, 松江의 모든 歌辭 作品들이 絶讚을 받고 있으나, 唯獨 星山別曲만이 例外가 되어 等閑視 되어온 까닭과 “別個의 價値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던”⁽¹⁴⁾ 그 價値가 어디에 있는가를 窺知해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 小論을 펴 보고자 한다.

2. 湖南地方의 詩歌活動

湖南地方이란 三國時代의 百濟땅으로, 現在는 忠淸南道 南部와 全羅南北道 一帶를 말한

(12) 現 光州市 東區 金谷洞

(13) 現 光州市 東區 忠孝洞

(14) 金忠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p 529~530.

다. 東쪽은 小白山脈을 境界로, 嶺南·嶺東과 接하고, 西쪽은 黃海이며, 南쪽은 多島海에 이르는 길다란 海岸線에 따라 많은 港灣과 半島 島嶼가 있고, 北쪽은 車嶺山脈을 끼고 畿湖와隣接해 있다.

이와 같은 地理的 與件으로 大部分이 平野이며, 그 平野는 肥沃한데다가 氣候는 따뜻하며 거기에 降雨量이 많아 自古로 農產物이 豊富하였으며, 길다란 海岸線과 多島海에는 많은 漁族들이 있어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이러한 地理的인 自然環境 때문에 生活은 豊饒롭고, 따라서 人心은 淳朴 淸純하고, 悠悠自適하는 그들인지라 每事에 多情多感하여, 豊盛한 情感 속에서 詩歌를 좋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地方의 노래로서, 現存하는 三國時代의 最古의 것이며, 歌詞 內容이 現傳하는 唯一한 井邑詞를 비롯하여 「方等山曲」⁽¹⁵⁾ 「禪雲山歌」⁽¹⁶⁾ 「無等山歌」⁽¹⁷⁾ 「智異山歌」⁽¹⁸⁾ 等等 三國時代의 노래와 高麗時代의 「長生浦」⁽¹⁹⁾ 等の 歌名이 傳해 오고 있다.

朝鮮時代에 있어서는 歌辭를 비롯해서 短歌, 劇歌(판소리)等 湖南人을 除外하고서는 朝鮮時代 文學이 成立이 되지 않을 程度로 많은 作家와 秀作들이 輩出되었다. 特히 歌辭에 있어서는 歌辭文學의 嚆矢로 치고 있는 丁克仁의 「賞春曲」을 爲始해서 宋純의 「俛仰亭歌」 白光弘의 「關西別曲」⁽²⁰⁾ 曹偉의 「萬憤歌」⁽²¹⁾ 李緒의 「樂志歌」⁽²²⁾ 楊士俊의 「南征歌」⁽²³⁾ 鄭澈의 「星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 「關東別曲」 「將進酒辭」 僧侶歌辭인 枕肱 尹懸辨의 「歸山曲」 「太平曲」 「靑鶴洞歌」⁽²⁴⁾ 鄭勳의 「龍湫游詠歌」 「水南放翁歌」 「嘆窮歌」 「迂瀾歌」 「聖主中興歌」⁽²⁵⁾ 朴士亭의 「南草歌」⁽²⁶⁾ 尹爾厚의 「逸民歌」⁽²⁷⁾ 魏世稷의 「金塘別曲」⁽²⁸⁾ 朴淳愚의 「金剛別曲」⁽²⁹⁾ 朴履和의 「朗湖新詞」⁽³⁰⁾ 姜膺核의 「武豪歌」⁽³¹⁾ 李商啓의 「人日

(15) 高麗史, 卷七十一, 樂志.

(16) 同上.

(17) 同上.

(18) 同上.

(19) 同上.

(20) 李相寶, 關西別曲研究, 국어국문학 제26호.

(21) 李家源, 萬憤歌研究, 東方學志 第6輯, 曹偉는 湖南出身은 아니나, 燕山朝 全南 順天으로 流配時作으로, 思美人의 主題 歌辭의 最初의 作品이다

(22) 丁益燮, 李緒의 樂志歌考察, 국어국문학 제24호, 湖南出身은 아니나 中宗朝 全南 昌平으로 流配時作.

(23) 李相寶 楊士俊의 南征歌新攷, 국어국문학 제62·63호.

(24) 金奉永, 枕肱歌辭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20호.

(25) 河聲來, 鄭勳의 水南放翁歌, 文學思想 通卷 8號.

(26) 丁益燮, 淸狂子 朴士亭의 南草歌攷, 池憲永先生選甲論文集.

(27) 具壽榮, 尹爾厚의 逸民歌研究, 東岳語文論集 第7輯

(28) 李鍾出, 魏世寶의 金塘別曲攷, 국어국문학 제34·35 合併號. 이 歌辭의 作者는 魏世寶가 아닌 從兄 世稷이다.

(29) 金聖培, 新村 朴淳愚의 金剛別曲, 旣涯梁柱東博士 華誕紀念論文集

(30) 丁益燮, 龜溪 朴履和의 歌辭攷, 韓國言語文學 第2輯.

(31) 李泰福, 歌辭註解 花歌武豪歌, 高嶺鎮民善政歌, 국어국문학 제25호.

歌「草堂曲」⁽³²⁾ 魏伯珪의 「自悔歌」「勸學歌」⁽³³⁾ 盧明善의 「天風歌」⁽³⁴⁾ 林道貫의 「庚戌歌」「思美人曲」⁽³⁵⁾ 鄭枋의 「孝子歌」⁽³⁶⁾ 閔胄顯의 「完山歌」⁽³⁷⁾ 金石亭의 「不老嘆」⁽³⁸⁾ 權光範의 「關西別曲」⁽³⁹⁾ 等等 有名 無名의 許多한 作家와 作品들이 보이고, 作者未詳의 作品으로 「湖南歌」⁽⁴⁰⁾ 「回文山踏山歌」⁽⁴¹⁾ 「井邑郡民亂時閭巷聽謠」⁽⁴²⁾ 等도 있다.

以上の 歌辭는 至今까지 發見된 湖南地方의 作品들이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資料가 續出될 것으로 보아서 많은 作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短歌에 있어서도 宋純, 金麟厚, 奇大升, 林晉, 高敬命, 鄭澈, 金成遠, 白光勳, 林悌, 金德齡, 鄭忠臣, 鄭勳, 尹善道, 尹爾厚, 尹斗緒, 朴淳愚, 姜膺煥, 魏伯珪, 奇正鎮 等 많은 作家들이 있고, 特히 그 中에서도 宋純, 鄭澈, 林悌, 尹善道, 鄭勳 等의 作品은 드높은 藝術的 價値로 보아 不朽의 名作들이라 할 수 있다.

劇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獨步의인 存在들인 宋興祿, 朴萬順, 朴裕全, 李捺致, 權三得申在孝, 金世宗 等은 朝鮮朝末의 名唱들로서 當代를 風靡했던 大家들이다.

이러한 湖南地方의 詩歌活動들은 거의가 隣近 고장의 地緣과, 同質의인 人脈의 系譜를 背景으로 한 人緣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假令 潭陽 昌平에서 宋純의 「俛仰亭歌」를 비롯해서 鄭澈의 「星山別曲」「思美人曲」「續美人曲」 林道貫의 「庚戌歌」「思美人曲」 鄭枋의 「孝子歌」 등이 나왔고, ⁽⁴³⁾ 長興에서 白光弘의 「關西別曲」을 爲始해서 魏世稷의 「金塘別曲」 魏伯珪의 「自悔歌」「勸學歌」「農歌」 盧明善의 「天風歌」 李商啓의 「人日歌」「草堂曲」 등이 나왔다. 白光弘과 魏世稷은 같은 長興 태생으로, ⁽⁴⁴⁾ 白光弘보다 百餘年後에 태어난 魏世稷의 「金塘別曲」은 白光弘의 「關西別曲」의 歌風을 影響 받은 듯한 느낌을 준다. ⁽⁴⁵⁾ 또는 靈岩에서 朴淳愚의 「金剛別曲」과 朴履和의 「朗湖新詞」「萬古歌」 등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朴履和는 朴淳愚의 再從孫이고 같은 靈岩 鳩林 出身들이다. ⁽⁴⁶⁾

(32) 李鍾出, 止止齋 李商啓의 歌辭攷, 국어국문학 제33호.

(33) 李鍾出님 所藏

(34) 李鍾出, 盧明善의 天風歌, 韓國言語文學 第4輯

(35) 河聲來님 (光州) 所藏

(36) 河聲來, 鄭枋의 孝子歌攷, 韓國言語文學 第10輯.

(37) 河聲來, 完山歌, 韓國言語文學 第5輯.

(38) 河聲來님 所藏

(39) 金俊榮, 關西別曲, 韓國言語文學 第4輯

(40) 崔勝範, 湖南歌에 대한 小考, 全北大論文集 第9輯.

(41) 丁益燮, 慶福宮歌 湖南歌 訓蒙歌 回文山踏山歌, 全南大國文學會 語文論集 第4號

(42) 金俊榮, 井邑郡民亂時閭巷聽謠, 국어국문학 제29호

(43) 金東旭, 壬亂前後歌詞研究, 震檀學報 第25~27合併號

(44) 白光弘은 長興 岐山, 魏世稷은 長興 冠山 出身.

(45) 李鍾出, 魏世寶의 金塘別曲攷, 국어국문학 제34·35合併號

(46) 丁益燮, 龜溪 朴履和의 歌辭攷, 韓國言語文學 第2輯

그리고 鄭勳의 「龍湫游詠歌」나 「水南放翁歌」도 그 構成形式이나 表現方法이 宋純의 「俛仰亭歌」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으니, 이것은 鄭勳의 故鄉인 南原과 宋純의 潭陽과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47)

이와 같이 湖南地方의 詩歌活動은 人緣과 地緣의 紐帶性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趙潤濟님이 命名한 歌壇(48)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朝鮮朝 湖南地方의 最初의 國文 詩歌의 歌壇이며, 湖南詩歌文學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고 同時에 朝鮮朝 詩歌史上 重要한 位置를 占하는 潭陽의 企村 俛仰亭歌壇을 爲始하여 「星山別曲」을 낳은 星山의 息影亭歌壇과 瀟灑園(49) 梁山甫가 文筆을 즐겼던 瀟灑園歌壇이 있고 長興에는 岐山歌壇을 비롯해서 「金塘別曲」「自悔歌」「勸學歌」「農歌」「天風歌」 등을 낳은 冠山歌壇(50)이 있고, 靈岩에는 「朗湖新詞」「萬古歌」 등을 낳은 間竹亭歌壇(51)이, 海南에는 저 有名한 孤山詩歌를 낳은 甫吉島의 芙蓉洞歌壇과 孤山의 鄉里의 金鎖洞歌壇이 있었던 것이다. 그 中에서도 代表的인 歌壇을 들라 하면 俛仰亭歌壇과 星山歌壇 그리고 孤山歌壇을 三大歌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四圍 風景이 秀麗하고 探勝客이 잦은 名勝地들이란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II. 星山別曲과 그 背景

1. 星山別曲과 關聯 亭閣考

옛날의 詩歌活動은 自然의 風景이 秀麗한 名勝地에 亭子를 짓고 그 亭子를 中心으로 隣近 선비들이 交友 和親하며, 學問을 닦고 詩才를 겨루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星山의 山麓 一帶에는 여기저기 名勝地들이 많아 自然히 많은 亭閣들이 散在해 있다. 息影亭을 비롯해서 棲霞堂, 瀟灑園, 環碧堂(52) 獨守亭(53) 芙蓉堂(54) 醉歌亭(55)

(47) 丁益燮, 湖南歌壇研究, 東大 大學院

(48) 趙潤濟, 國文學史, pp379~382

(49) 在星山麓, 息影亭에서 東南쪽으로 1.5km 가량의 거리에 있는 亭閣으로, 朝鮮時代의 庭園 中 가장 規範가 크고 原型이 完全히 保存된 唯一한 것으로 有名하다

(50) 冠山은 長興 所在 名山으로 舊名은 天冠山.

(51) 間竹亭은 靈岩 鳩林의 名所

(52) 息影亭 南西便 釣台 앞 小丘陵에 位置한 亭子였으나, 現存의 것은 鄭氏 宗中에서 重建한 것

(53) 瀟灑園의 東北쪽 山陰洞 所在 麗末 杜門洞 72賢의 한 사람인 瑞隱 全新民이 세운 隱居處.

(54) 息影亭 바로 아래에 있다 近年에 復元되었다

(55) 光川 忠孝洞 所在, 高宗 20年(1890), 忠壯公 后孫들이 세움. 詩人 權石洲의 꿈 속에 忠壯公이 술에 醉하여 나타나 詩를 읊음으로 石洲가 答詩를 보내면서 恨을 달래어 주었다는 傳설 有한 것

楓岩亭⁽⁵⁶⁾ 등이 있는데 모두가 探勝客이 자주 찾을 수 밖에 없는 名所들로서, 情感 넘치는 詩人墨客들의 交友處요, 憂國慨世의 선비들과 隱居之士들의 吟風詠月的 産室들이었다.

이 中에서도 特히 星山別曲의 産室이 된 息影亭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것은 林石川을 위해서 金棲霞堂이 지은 亭閣이다.

在縣南七里星山 石川林億齡舊居 亭內又有棲霞堂 有林億齡記及松江鄭澈 霽峰高敬命 高峰奇大升詩 鄭澈作星山別曲而播諸樂譜云云⁽⁵⁷⁾

息影亭即故林石川遺趾也 石川當明廟乙巳 知士禍將作 絕音游官 退歸南中 構一小亭於昌平星山之下 扁以息影 作記以見志 亭之北 有棲霞堂舊基 又有芳草洲 紫薇灘 鷓鴣岩 琴軒 月戶等諸勝景 與河西霽峰 及我松江先祖杖履相從於一洞之中⁽⁵⁸⁾

이들의 記錄을 보면 林石川이 明廟의 乙巳士禍의 幾微를 豫見하고 退官하여 昌平 星山에 내려와 構一小亭 곧 息影亭을 卜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林石川 本人의 息影亭記를 보면

金君剛叔友也 乃於蒼溪之上 寒松之下 得一麓 構小亭 柱其隅 空其中 苫以白茅 翼以涼簟 望之如羽蓋畫舫 以爲吾休息之所⁽⁵⁹⁾

로 되어 있다. 따라서 林石川의 “吾休息之所”로 金剛叔 成遠이가 지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2. 星山別曲과 關聯 人物考

星山歌壇에 수시로 出入하면서 詩歌活動을 展開한 人士들로서는 俛仰亭 宋純을 비롯해서 息影亭의 林億齡, 金成遠, 瀟灑園의 梁山甫, 環碧堂의 金允梯⁽⁶⁰⁾ 霽峰 高敬命⁽⁶¹⁾ 高峰奇大升⁽⁶²⁾ 河西 金麟厚⁽⁶³⁾ 松川 梁應鼎⁽⁶⁴⁾ 青蓮 李后白⁽⁶⁵⁾ 玉峰 白光勳⁽⁶⁶⁾ 龜峰

(56) 光州 元曉寺 溪谷 下流쪽 所在, 金忠壯公의 弟 金德普가 지은 隱居處(號楓岩)

(57) 昌平邑誌, 息影亭.

(58) 丈岩 鄭祐의 息影亭重修記.

(59) 石川集, 癸亥七月.

(60) 燕山君 7年(1501)~宣祖5年(1572), 金德齡의 從祖父, 弘文館校理 羅州牧使 等 歷任, 松江을 教育시키고 外孫婿로 삼았다 (瀟灑園 事實 卷4/金思燾, 松江歌辭新攷, 慶北大論文集 第2輯, p. 6).

(61) 中宗28年(1533)~宣祖25年(1592), 東萊府使 等 歷任, 光州에서 義兵 六千餘名을 이끌고 錦山에서 戰死, 詩 書 畫에 뛰어남 光州 褒忠祠 祭享 (韓國人名大事典, p. 24).

(62) 中宗22年(1527)~宣祖5年(1572), 性理學者, 吏曹參議, 大司諫 等 歷任 (韓國人名大事典, p. 66)

(63) 中宗 5年(1510)~明宗15年(1560), 儒學者, 玉果縣監 等 歷任 (韓國人名大事典, p. 159)

(64) 中宗 14年(1519)~?, 工曹參判 大司成 歷任, 詩文에 뛰어남 (韓國人名大事典, p. 454)

(65) 中宗15年(1520)~宣祖11年(1578), 吏曹判書, 兩館大提學 歷任, 清白吏 (韓國人名大事典, p. 765)

(66) 中宗32年(1537)~宣祖15(1582), 三唐詩人의 한 사람으로 名筆로도 有名, 康津의 瑞峰書院에 祭享 (韓國人名大事典, p. 317)

宋翼弼⁽⁶⁷⁾ 知足庵 吳謙⁽⁶⁸⁾ 松江 鄭澈 等 許多한 詩人 墨客들이 來往하면서 詩作을 즐겼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全羅道라는 地緣과, 先後輩之間, 交友關係⁽⁶⁹⁾ 師弟之間⁽⁷⁰⁾ 姻戚關係⁽⁷¹⁾ 等으로 얽혀 있어서 彼此間에 커다란 影響을 끼치고 있었다. 그 中에서도 林億齡의 息影亭을 中心으로 瀟灑園의 梁山甫, 棲霞堂의 金成遠, 環碧堂의 金允梯 等은 星山亭閣의 主人公들이요, 星山歌壇의 主役들로서, 松江에게 多大한 影響을 준 背景이 된다. 그리고 서로 四仙이라고 불렀던 林石川 金棲霞堂 高霽峰, 鄭松江 等은 息影亭 棲霞堂을 題詠한 詩作이 오늘날 많이 傳하고 있거니와, 이것이 그대로 좋은 資料가 되어 星山別曲이 된 것이다.

星山別曲을 낳은 星山歌壇의 背景考에 있어서, 여기에 出入한 모든 人士들에 대하여 모두 알아 보는 것이 좋겠으나, 直接的으로 星山別曲 製作의 主人公들이 되었던 林石川과 金棲霞堂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먼저 林億齡에 대하여 알아보자. 燕山君 2年인 1496년에 태어나 宣祖 1年 1568년에 卒한 文臣으로 字는 大樹, 號는 石川, 本貫은 善山, 海南 出身으로 어려서 訥齋 朴祥에게서 受學, 中宗 11年 丙子年 (1516)에 進士가 되고, 乙酉年(1525)에 式年 文科에 丙科로 及第하였다. 明宗 元年(1545) 乙巳士禍 때, 錦山郡守로서 동생 百齡이 小尹 一派에 加擔하여 大尹의 많은 선비들을 追放하자 自責을 느끼고 退官하였다. 그 후 百齡이 原從功臣의 錄卷을 보내오자 分格하여 이를 불태우고 海南에 隱居하였다.

그 후 昌平 지실로 들어가 息影亭에서 道學을 講論하고 詩를 읊으면서 지냈는데, 다시 官界에 登用되어 明宗 7年(1552)에 同副承旨, 兵曹參知를 歷任, 이듬해 江原道 觀察使를 거쳐 1557年 潭陽府使가 되었다. 宣祖 元年(1568)에 別世하였는데, 同福의 道源書院과 海南 石川祠에 祭享되었으며, 詩文集으로는 石川集이 남아 있다.⁽⁷²⁾

林石川億齡詩人也 且有奇偉氣 落落不隨時 俯仰詩學青蓮而家數甚大 嘗詠其少絕曰 人訪憑水檻 鷺亦立沙灘 白髮雖相似 吾閑鷺未閑 其睥睨豪橫之意可見⁽⁷³⁾

江南詞宗吾石川 文彩風流今謫仙 玉堂金馬謝時人 將來獨與魚囊親君於門下情義俱⁽⁷⁴⁾

(67) 中宗29年(1534)~宣祖32年(1599), 學者, 庶出, 當代 八文章家의 한 사람(韓國人名大事典, p 384).

(68) 燕山君2年(1496)~宣祖15年(1582), 文臣, 右議政 等 歷任(韓國人名大事典, p 471)

(69) 霽峰과 松江, 玉峰, 龜峰과 松江사이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 38)

(70) 石川, 河西, 高峰, 松川과 松江, 또는 玉峰과 青蓮사이 (丁益燮 湖南歌壇研究, p 103)

(71) 梁山甫의 次子는 河西의 婿, 沙村은 松江의 妻外祖父, 棲霞堂은 松江의 妻外再堂叔(金思燁 松江歌辭新攷, 慶北大論文集 第2輯, p 6).

(72) 韓國人名大事典 p 783

(73) 象村集. 晴窓雜談下

(74) 玉峰集 金陵記懷贈棲霞主人

公字大椿 號石川 善山人 中宗廿年乙酉登第 官至觀察使 明宗乙巳被禍 後棄官不仕 處心剛直 英氣發越 文辭雄放 遇事敏捷 其弟百齡 陰結權姦 媚禍士林 公貽訓戒詩 至切至慎 百齡不從 棄官南歸 世居善山 後寓居海南 文章行誼迥出流俗 ⁽⁷⁵⁾

이와 같은 記錄으로 보아 林石川과 金成遠이 姻戚關係가 있는지의 與否는 알 길이 없으나 當代 湖南의 訶宗으로서 推仰 받던 學德이 兼備한 文人이었던 林石川이 退官하여 故鄉인 海南에 隱居하자 當時의 全南의 風流才士들이 모두 다투어 詩文을 배우고 私淑하기에 이르자, 金成遠이 水石이 秀麗한 星山下에 息影亭을 卜築하고서 石川先生을 맞아 詩文을 배우면서 閑日月을 보내었던 것 같다.

다음에는 金成遠에 대하여 알아보자.

剛叔字 光山人 兵曹參議城之孫 早孤事母至孝 明廟戊午生員 宣祖朝除濟源察訪 丁酉倭亂 奉母竄匿林藪 數日猝遇賊 母先被刃 子同赴死 人皆歎服 嘗寓居于縣南星山 自號棲霞居士 ⁽⁷⁶⁾

聞剛叔彈琴 激激水落石 蕭蕭風入松 無人傳此曲 金子得神通 ⁽⁷⁷⁾

金成遠(1525~1597)은 字는 剛叔 號는 棲霞堂이다. 中宗 20年 石底村(現 光州市 忠孝洞)에서 태어났다. 7歲時 아버지를 여의고 8歲 때부터 從叔父 沙村 金允梯에게 受學, 34歲에 司馬에 올랐으며 明宗 15年(1560)에는 星山鹿에 息影亭과 棲霞堂을 짓고, 林石川에게서 詩를 배우면서 松江 舞峰 高峰 등과 親交하였으며, 科擧에 뜻을 두지 않고 漢書와 詩作으로 餘裕 있는 生活을 즐겼는데, 特히 彈琴의 妙手이기도 하였다.

生員으로서 蔭補로 察訪을 거쳐 同福縣監으로 在任時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各地의 義兵들과 제휴하고, 69歲時 再從姪되는 金德齡 兄弟가 義兵을 일으키자 戰具와 軍糧 등의 많은 物資를 供給해 주었다.

丁酉再亂에 公은 老母를 등에 업고 和順 同福 뒷산인 聖母山城으로 避難, 敵兵을 만나자 公의 內外가 몸소 어머니의 身邊을 保護하다가 함께 殺害되었다. 이때 公의 나이 73歲였다. 後에 이 고장 사람들이 이를 기리어 그 山名을 母護山이라 하였으며, 또 마을도 母護村이라 고쳐 불렀다. ⁽⁷⁸⁾

이러한 人物이기에 松江이 그의 風流와 人品을 欽慕하고 稱頌한 星山別曲을 짓게 된 것이다.

(75) 清江瑠語

(76) 昌平邑誌

(77) 石川集

(78) 光州邑誌 韓國人名大事典 P 118.

Ⅲ. 星山別曲과 鄭澈

1. 作者考

(1) 抒情詩人으로서의 松江

松江의 一生을 三大別하면 政界生活, 流配生活, 隱居生活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政界生活만 하더라도 또한 政治生活과 黨爭生活等, 참으로 多事多難한 一生을 보낸 松江인지라, 그 一生을 모두 살펴 보는 것은 本稿에서의 뜻하는 바가 아니고 다만 歌辭文學의 最高峰이라는 그의 抒情詩人으로서의 人性, 人品을 통한 人生觀이나 藝術觀을 推究하고 星山別曲을 낳게 된 緣由가 된 星山生活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

그에 대한 先人들의 많은 評들이 있는데 먼저 反對黨인 東人들의 評을 살펴 보자.

故頭敦寧府使鄭澈 以蛇蝎之性 懷鬼蜮之謀 毒氣所種 惟以傷人害物爲事⁽⁷⁹⁾

라고 하여 酷評을 하였는데, 이것은 正當性을 잃은 歪曲된 見解와 辱說로 보아지므로 取할 바가 못될 것이다.

다음 같은 西人派의 評으로서는

澈之爲人 孝友清介 立朝二十餘年 一朝失祿 流落南方 其貧至於炭易米 盤無醬 則清高一節 足以範世厲俗 此李珣之所以終身受重⁽⁸⁰⁾

이라고 하여, 孝, 友, 清, 介의 선비라, 粟谷이 매우 重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南人이며 松江과는 左, 右相으로서 朝夕으로 相對한 柳成龍의 評이나, 宣祖의 評은 가장 正確한 觀察이라고 보아진다.

爲人剛偏 喜言人過 恩讐分明⁽⁸¹⁾

鄭澈之爲人 其心也正 其行也方 其舌也直 故不容於時⁽⁸²⁾

이러한 松江의 人性이 抒情詩人으로서 도리어 그의 歌辭를 남길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性品の 松江이, 黨爭의 時代人으로서 西人의 頭目으로 指目되어 波瀾重疊한 政治, 流配生活를 거뒀하는 동안에 豪放 好酒하였으니, 스스로도 「半百人間醉得名」⁽⁸³⁾이라

(79) 己丑錄 甲午十一月 兩司合啓

(80) 李貴 上疏文中

(81) 柳成龍 雜記

(82) 宣祖批答

(83) 松江의 「舟中謝客」詩中

했고, 「撤寓居江華病酒卒」⁽⁸⁴⁾이라 하여 술 때문에 病들어 죽었다고 했다. 이러한 藝術家로서의 氣像이나 作家的 素質이 豊富했던 그를 象村은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其風調灑落 姿性清明 愛人下士 不爲畛域 廉於物欲 信於交知 居家孝悌 立朝潔白 當求之古人中 有時持杯半酣 口詠手書 長詩短歌 交就錯成 軟語團圓 形跡俱忘 爽然相對 不覺膝之前也 餘見人多矣 未嘗見此格韻也⁽⁸⁵⁾

라고 하여 李謫仙과도 같이 醉眼朦朧히 한 손으로 잔을 잡고 한 손에는 붓을 들어 詠凡弄月하며, 또는 懸河之辯으로 諧謔 談論 自在하여 一座를 席捲하던 모습이 眼前에 彷彿케 함이 있다.

이러한 松江인지라 그의 人生觀은 學問을 하되 그것은 登官榮達이나 立身揚名의 世俗의 인 것이 아니고⁽⁸⁶⁾ 그의 「理想은 終爲仙鶴上蒼虛」⁽⁸⁷⁾라 하여, 蒼空에 鶴이 되어 仙人과 더불어 노닐고자 한 幻想에 끝없이 젖어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의 藝術觀을 窺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는 山水間 自然美를 發見 愛護하고 人生을 즐기는 享樂主義와 逃避思想이 主가 되는 그의 作品들을 남기게 된 것이다.

(2) 星山生活과 松江

서울 胎生인 松江이 星山과 因緣을 맺게 된 것은 10歲時 그의 妹夫인 桂林君 璠가 乙巳士禍에 謀陷을 받아 죽고, 伯兄 滋는 잡혀서 杖流되어 途中에서 죽고, 父親 惟沉은 關北, 定平, 延日等地에 流配되었기 때문이다.⁽⁸⁸⁾ 그리하여 松江은 나이 14歲 때, 그의 母親과 함께 祖父 墓가 있는 潭陽郡 古西面 院江里로 내려와 避身하며 살게 되었다.

當時 그의 兄 沼는 順天의 妻家에 依託하고 있었으므로, 여름철 어느날 松江은 院江里를 떠나 이곳 南面을 거쳐 同福을 통해 順天으로 가는 길에 芝谷里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곳을 지나다 松江은 滄溪川 龍沼의 맑은 물을 보자 불현듯 몸을 씻고 싶은 衝動을 이길 수 없어서 먹을 삼게 되었는데 여기서 沙村 金允梯의 눈에 띄게 되었다.

當時 沙村은 이 龍沼에서 가까운 동산 위에 環碧堂이란 亭閣을 짓고 隱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낮잠이 든 沙村의 꿈에 龍沼에서 龍이 놀고 있기에 怪異하게 여기고 꿈을 깨어 가 보았더니 美少年 松江이 먹을 삼고 있었다고 한다. 한눈으로 그의 非凡한 氣骨을 보고 여러가지 問答을 하는 사이에, 그의 英特함에 놀라 順天으로 가는 길을 만류시키고 自己 膝

(84) 宣祖實錄

(85) 象村. 松江集序

(86) 自己 아들을 宋龜峰 門下에 就學하러 보낼 때 준 戒子帖에서 端的으로 表現되어 있다

(87) 松江詩「新年祝」

(88) 乙巳傳聞錄. 鄭惟沈傳

下에 두어 學問을 닦게 하였으니 이것이 松江으로 하여금 星山과 因緣을 맺게 한 緣由가 되었다. ⁽⁸⁹⁾

그뒤 明宗 6年(1551) 16歲時 王子 誕生의 國慶事가 있어 父親이 釋放되자 院江里的 唐旨山 아래에 비로소 一家族이 모여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松江이 26歲時 進士試 一等을 하고 다음해 3月 文科 別科에 壯元할 때까지 約 13年間 多情多感한 靑少年 時節을 여기서 보내면서 松江, 星山의 勝景을 벗삼으며, 꽃다운 그의 꿈을 키우며 成長했던 것이다.

이때 金河西, 奇高峰에게 受學하고 詩는 林石川에게 배웠다.

두번째의 星山生活은 宣祖 8年(1575) 40歲時, 東西의 色目이 나타난 때라 서로 機會만 있으면 남을 謀陷하려 할 때여서 辭官하고 鄉里 芝谷里에 돌아왔다. 그러나 在鄉中에 應教 直提學 執義 司成 諸寺正 等に 除授되었으나 받지 않고, 戊寅(43歲) 正月에 朝廷에 나와 掌樂院正을 拜受하고 4월에 直提學, 5월에는 承旨를 拜受하였다. 따라서 40歲로부터 42歲까지의 3年間이 되는 셈이다. ⁽⁹⁰⁾

세번째의 星山生活은 江原 監司 在職 一年後에 還朝하여 兵曹參知, 大司成 等を 歷拜하였으나 盧守愼事件으로 8월에 退官하여 昌平으로 돌아왔던 46歲 때이다. 그리고 12월에 特旨로써 全羅道 觀察使를 拜命하여 翌年 8월까지 約 1年間 여기의 生活이 繼續되었다. ⁽⁹¹⁾

네번째의 星山生活은 松江이 50歲이던 乙酉年 兩司의 論斥을 받고 스스로 退仕를 마치 못하게 되었던 때로부터 4年間이다. 이때는 東人의 全盛時代라 政治的으로는 가장 失意에 빠진 悲慘한 時期였으나, 그러나 오히려 作家生活로서는 가장 自然美에 沒入하여 詩想을 가다듬고 悠悠自適하면서 詩作에 耽溺하던 貴重한 時期로써 이때 「星山別曲」「思美人曲」「續美人曲」 등이 나오게 된 것이다.

2. 製作年代考

星山別曲의 製作年代에 대하여 지금까지 세가지의 見解들이 있었다.

첫째는 松江의 50代 製作說이요, 둘째는 25歲 製作說이며, 셋째는 40代 製作說이다. 50代 製作說은 李秉岐님과 趙潤濟님의 見解이고, 25歲 製作說은 金思燁님과 朴晟義님, 그리고 40代 製作說은 徐首生님과 丁益燮님들이다.

먼저 50代說에 대하여 알아보자.

“49歲에 大司憲, 그 이듬해에 判敦寧이 되어 朝臣의 讐毀와 兩司의 論斥을 받고 高陽에 退去하였다가 昌平으로 갔었다. 이리하여 한 5年동안 昌平에서 그의 妻外叔인 金成遠의

(89) 朴塘洪 無等山一由來. 傳說 景觀—PP 174~175 /松江의 12代孫 芝谷里 居住 鄭存澤

(90) 韓國人名大事典 P854

(91) 同上

山亭을 얻어 있으며 水石과 鷗鶴으로 더불어 벗도 삼고, 항상 國事를 걱정하며 君恩을 생각하였다. 星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도 이때 지은 것이다.”⁽⁹²⁾

“星山別曲은 星山の 風景을 叙述한 것이나 星山은 昌平에 있는 山인데, 그가 昌平에 滯居한 것은 江原道 觀察使를 辭任하고 돌아 온 이듬해 辛巳年 46歲時 1年間과, 앞에서 말한 乙酉年 51歲時 以來 4年間이라고 보이니, 亦是 其間에 著作되었으리라 믿고자 한다”⁽⁹³⁾

라고 하여 李秉岐님과 趙潤濟님의 見解가 처음 나왔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50代說에 생각을 같이 했던 金思燁님⁽⁹⁴⁾과 朴晟義님⁽⁹⁵⁾들이 「棲霞堂遺稿」가 發見됨으로써 星山別曲의 製作年代는 是正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引用 是正하였다.

庚申(公三十六歲) 嘗言一小成以榮親矣 不復應舉 築棲霞堂于昌平之星山 爲終老計 自是優游林泉 沈潛書籍 不知日之將夕 以河西爲師 松江高峰霽峰諸賢 爲道義交 迭相墳壟(旆) 往來不絕 松江尤加敬 每呼以霞丈 爲有星山別曲 行于世 又嘗構一小亭 推與石川 晨夕陪從 講討交至 卽息影亭是已 百世之下 聞其風者 覺凜然起懦也⁽⁹⁶⁾

金思燁님은 이러한 記錄으로써 星山別曲을 짓게 된 動機와 製作年代를 살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36歲(金成遠)때 息影亭 棲霞堂을 지어 石川에게 詩를 배우며 高峰 霽峰 諸賢과 道義의 交를 맺어 往來가 잦았고 以後 學業을 일삼지 않고서 林泉에 優遊하며 書籍에 沈潛하였다. 松江의 星山別曲도 이해 金成遠을 爲해 作詞하였다.”⁽⁹⁷⁾

라고 하여 25歲 製作說을 主張하였으며, 朴晟義님은,

“金成遠이 構築한 棲霞堂과 息影亭에서 林石川 鄭松江 金棲霞 高霽峰 等이 朝夕으로 學問을 講論하면서 林泉 사이에 優游하던 生活 속에 特히 金成遠을 爲해서 지은 것이며, 同時에 松江 25歲(明宗 15年 金成遠 36歲)때 이룩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⁹⁸⁾

라고 하여 亦是 25歲 製作說을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學界에선 別 異意없이 이 見解를 그대로 따라 오다가 徐首生님이 1971年 松江의 星山別曲 創作年代 是非란 論文⁽⁹⁹⁾에서 反論을 提起하고, 松江 40歲 以後 45歲頃 關東

(92) 李秉岐 白鐵 國文學全史 P131

(93)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P286

(94) 金思燁 改稿國文學史 P369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530

(95) 朴晟義 松江歌辭 P204

(96) 鄭演의 「棲霞堂遺稿」 卷下 金成遠年譜

(97) 金思燁 松江歌辭新攷. 慶北大論文集 第2輯 (1958) P5

(98) 朴晟義. 松江蘆溪孤山の 詩歌文學(1966) P. 184

(99) 詩文學 第24號

別曲을 짓기 以前으로 그 年代를 推定하고 나섰다.

그 反論의 根據는, 첫째 金思燁님이 例示한 「棲霞堂遺稿」 行狀 記錄은 그 解釋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庚申年 金成遠이 36歲이고 松江이 25歲 때 반드시 이 歌辭가 나왔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松江의 歌辭를 볼 때, 前期作品(關東別曲)은 豪蕩灑落하고 淸朗華美한데 反하여, 後期作品(前後 思美人曲)은 悲壯悽切하고 淸惋激昂한 것으로 보아, 이 兩個의 氛圍氣 中 星山別曲은 前期作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歌詞 內容으로 볼 때, 25歲作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丁益燮님은 1974年 「湖南歌壇研究」란 論文에서⁽¹⁰⁰⁾

“40대에 松江은 東西朋爭으로 不安을 느꼈고, 이때문에 昌平에 와서 隱居하기도 했다. 松江은 이때 하나의 過客이 되어 棲霞堂 옛 主人을 찾고 보니, 아직도 星山 勝景에 파묻혀 神仙같이 살고 있는 棲霞堂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生活이 부러웠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이같은 生活을 欽慕하면서 그를 기리는 뜻으로 이 노래를 지은 것이라고 하면, 松江의 나이 40을 좀 넘은 時期라고 보아야 한다. (中略) 그러므로 이 歌辭는 松江의 나이 41~44歲 사이에 지어진 것이라고 보면 大過없을 듯하다. 그러니까 松江 歌辭 中에서는 가장 먼저 된 作品이 되는 셈이다.”

라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여러 製作說에 대한 筆者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먼저 25歲時의 作으로 본다면 息影亭 卜築 以前이 되어버린다. 息影亭의 卜築年代에 있어서 石川 自身の 息影亭記⁽¹⁰¹⁾를 가장 믿을만한 것으로 친다면, 庚申年보다는 3年後인 癸亥年이라 金成遠의 39歲 때이며, 松江의 28歲 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星山別曲의 緒詞에 보면

엇던 지날손이 星山の 머물며서
棲霞堂 息影亭 主人아 내말듯소

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 矛盾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松江 25歲時라면 아직 世俗의 苦樂을 맛보기 前이며, 다음해 進士試에, 그 다음해 別試文科에 各各 壯元을 한 것⁽¹⁰²⁾으로 보아 科擧 應試에 餘念이 없었을 때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石川集에 따라 松江이 28歲인 癸亥年으로 본다면 이때는 及第後 持平, 典籍 등을 歷任하고 있을 때이니 더욱 問題가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100) 東國大學校 大學院 學位論文

(101) 石川集 息影亭記 癸亥七月

(102) 韓國人名大事典. P. 854

다음 40代說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徐首生님은 40~45歲로, 丁益燮님은 41~44歲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의 松江은 앞에서 言及한 「星山生活과 松江」의 두번째 星山生活에 該當되는 時期로써, 40代說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40~42歲時의 作으로 是正되어야 한다.

또한 40~42歲의 이때는 비록 黨爭이 심어 辭官 歸鄉 中이라 하나, 끊임없이 朝廷의 恩寵을 입어 應敎, 直提學, 執義, 司成, 諸寺正 等の 除授를 받고 있는 때라⁽¹⁰³⁾ 棲霞堂의 生活을 憧憬하고 羨望한데서 빚어진 星山別曲의 製作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兩司의 論斥을 받고 스스로 退仕를 마지 못하게 되었을 때로부터 4年間 東人의 全盛時代, 政治的으로는 가장 失意에 빠진 悲慘한 時期로 보는 50代說이 가장 은당한 見解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흔히 “金棲霞 林石川 鄭松江 高舜峰의 四人은 서로 四仙(石川集)이라고 부르고, (中略) 이러한 四仙의 題詠詩가 그대로 좋은 資料가 되어 松江의 靈筆로 비단처럼 짜여지고 아름답게 수 놓아진 것이 星山別曲이다.”⁽¹⁰⁴⁾ 또는 “星山別曲은……松江이, 金成遠이 構築한 棲霞堂과 息影亭에서 林石川……”云云한 見解⁽¹⁰⁵⁾들은 그 年代를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松江이 50歲가 되는 乙酉年(1585)은 3年 年上인 舜峰과 11年 年上인 金成遠은 問題가 없으나, 石川은 死後 20年이 가까운 때인지라 여기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四仙이 같이 어울려 다니며 閑日月을 보내던 當時에 星山別曲이 製作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松江의 50歲後 4年間에 星山別曲이 製作되었다고 하면 四仙 中의 세 사람만이 어울려 다니면서 金成遠이 스승으로 모셨던 林石川의 生前의 學德과 詩文을 思慕하며 息影亭을 中心으로 한 星山의 四時의 景物을 읊은 것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이때의 세 사람들의 年令은 5.60歲代의 完熟한 나이로 모두 世俗의 苦樂을 다 겪으며 官路에서 失意 退任한 後인지라 自然의 現象에 깊이 沒入하여 自然美의 發見에 애쓰던 자취가 歷歷하였기에 이름없는 星山이라는 조그마한 고장의 景物에서도 一莖一草 一塊石에 이르기까지 情을 주고 詩趣를 느껴 藝術化에 腐心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地名. 名所考

星山別曲에 나오는 地名·名所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올바른 註解를 할 수 있고, 이 歌辭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瑞石

光州 無等山頂의 瑞石峰이다.

(103) 同上 / 朴晨義. 松江·蘆溪·孤山의 詩歌文學. p.144

(104)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501

(105) 徐首生. 松江의 星山別曲 創作年代是非. 語文學 第24號.

無等山在縣東十里 嶺山 一云瑞石山 穹窿高大 雄盤五十餘里 濟州漢擊山 慶尙南道南海巨濟島等 皆在眼底 山西陽崖有石條數十櫛立 高可百尺 山名瑞石以此 天旱欲雨 與久雨欲晴 山輒鳴聲聞數十里⁽¹⁰⁶⁾

息影亭에서 “南쪽을 向하여 앉아 보면 無等山의 頂上”이 가깝게 바라보인다. 따라서 여기의 「瑞石」을 “상서로운 돌, 또는 息影亭 附近的 깨끗한 돌”로⁽¹⁰⁷⁾ 註解하는 것은 잘못이다.

(2) 滄溪

星山 앞을 南에서 北으로 흘러가는 냇이다. 當時는 水深이 깊어서 息影亭과 環碧堂 사이를 배로 건넜다고 하기도 하고, 虹橋를 가설하고 來往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石橋인 忠孝橋가 놓여 있다.

따라서 여기의 「滄溪川」을 “푸른 시내”라고 註解⁽¹⁰⁸⁾하는 것도 잘못이다.

«(3) 芳草洲

息影亭의 西쪽 滄溪川 건너편의 相當히 넓은 平野로 光州湖가 생기기 前에는 논, 밭의 農耕地였다. 지금도 여름철 물이 빠지면 땅이 보이는 水深이 가장 얇은 곳이다. 그런데 當時는 이 一帶가 牧畜場이었다고 傳해 오고 있다. 다음의 노래들은 이곳의 風景을 읊은 것일 것이다,

清江 綠草邊의 쇼머기는 아히들이
어워를 제워 短笛을 빗기부니⁽¹⁰⁹⁾
牧童倒騎牛 平郊細雨裏
行人問酒家 短笛山村指⁽¹¹⁰⁾

(4) 巖端岩

息影亭 아래 滄溪川 건너 는 가운데 있는 바위이다. 띄엄띄엄 있는 일곱개의 큰 바위를 동네 사람들은 「七星바위」라고 한다. 그 가운데 큰 바위 위에 흡사 사람이 누웠던 것 같은 흔적이 있는데, 이것을 金忠壯公이 떡 감다 누웠던 자리라고 傳한다. 그러나 이 바위가 모두 「고인돌」(支石墓)이라는 것이다.⁽¹¹¹⁾

(5) 紫薇灘

息影亭 앞 絕壁아래로 길이 있고, 길 아래로 滄溪가 흐르는데, 이 길과 냇 사이는 約

(106) 輿地勝覽, 光山條

(107) 朴晨義, 松江 蘆溪·孤山의 詩歌文學, p 84

(108) 同上

(109) 星山別曲 秋景

(110) 石川集

(111) 崔夢龍(全南大), 榮山江畔 工事로 인한 水沒地區의 先史遺蹟, 湖南文化研究 6輯

10 m쯤 되는 낭떠러지로 이곳에 當時는 紫微(紫薇·百日紅)가 茂盛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紫微 老木 몇그루가 남아 있을 뿐이며, 息影亭 周邊에 또한 10餘그루가 남아 있다.

이 紫微가 있는 아래가 여울로 곧 「紫微灘」이라고 하였는데, 그냥 “여울 이름”이란 註解⁽¹¹²⁾는 不充分的 것이다.

(6) 釣台

龍沼를 지나 언덕의 絕壁 아래 넓은 바위가 두 개 있어서 배를 타고 건너 갔다고 한다. 이 바위가 낚시터로서 釣台라고 한다. 지금은「止水石」이라는 石刻이 있는데 忠壯公의 낚시터였다고도 한다.⁽¹¹³⁾

1976年 이곳에 光州댐이 完工되어 巖礁岩을 비롯하여 釣台와 紫微灘 等 모두 水沒되었으나, 지금은 周邊에 낚시터 아닌 곳이 없다.

(7) 龍沼

滄溪川에 있는 지금의 忠孝橋의 上流 30 m 程度에 있으며, 龍이 昇天하였다는 傳說과 함께 깊은 웅덩이가 있다. 松江이 여기에서 먹감다가 沙村의 눈에 쫓겨난 곳이라고 한다.⁽¹¹⁴⁾

4. 內容考

星山別曲은 樓霞堂 金成遠의 生活에 대한 憧憬과 美望에서, 星山의 아름다운 四季 自然 勝景의 變化와 그 主人公의 悠々自適하는 멋있는 生活, 곧 讀書, 醉興, 彈絃의 風流를 노래한 叙景的인 歌辭다.

그 構成은 緒詞, 春景, 夏景, 秋景, 冬景, 結詞(風流·讀書·飲酒·彈絃)의 順으로 짜여져 있고, 그 表現은 風流가 넘치고 寫實的이어서 迫眞感을 준다. 곧 다음의 例文들이 이를 말해준다.

天邊의 靑雲구름 瑞石을 汲을사마
 나눈듯 드는양이 主人과 엇더호고
 滄溪 靑木결이 亭子알려 들러시니
 天孫雲錦을 휘라셔 버혀내여
 닳는듯 찌터는듯 현스토 현스홀샤(緒詞)

仙境 같은 息影亭의 自然環境과, 여기를 벗삼은 主人의 風流와 氣像이 잘 나타나 있다.

南風이 건듯부러 綠陰을 헤더내니

(112) 朴晨義, 松江·蘆溪·孤山의 詩歌文學, p.85

(113) 朴培洪, 無等山-由來 傳說 景觀- / 鄭存澤(現 芝谷里 居住 松江 12代孫 遺蹟·遺物管理者)

(114) 同上

節아는 피썩리는 어디로써 오듯던고
 羲皇 버개우히 뜻좁을 얼끗세니
 空中 저준欄干 물우히 셔잇고야(夏景)

고요한 山中의 여름철 閑暇로움이 한 幅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描寫되었다.

空山の 싸힌넙홀 朔風이 거두부러
 세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天公이 호시로와 玉으로 곳출지어
 萬樹千林을 꾸며곰 낼세이고
 압여홀 마리어러 獨木橋 빗것논디
 막대멘 늘근중이 어니덜로 간닷말고
 山翁의 이 富貴를 넘드려 현스마오
 瓊瑤窟 隱世界를 초줄이 이실세라(冬景)

눈 내린 겨울의 風致와, 여기에 隱居하고 있는 山翁들의 大自然의 富貴를 노래한 것이다. ‘天公이 호시로와 玉으로 곳출지어’ 萬樹千林을 꾸며 내었다고 한 雪景의 韻致있는 表現이 멋있기만 하다. 그리고 이러한 風景속에서 財物과 名譽를 한 조각의 뜬구름처럼 여긴 그들의 生活인지라, 大自然을 所有한 富貴에 소문이 나서 俗世人이 찾아올까 두려워한다는 心情은 그저 멋있기만 할 따름이다.

엇그제 비준술이 어도록 니진느니
 잡거니 밀거니 술궤장 거후로니
 막음의 미친시름 져그나 흐리느다
 거르고 시웁언저 風入松 이야고야
 손인동 主人인동 다 니저브려세라
 長空의 셋난鶴이 이골의 眞仙이라
 瑤台 月下의 형혀 아니 만나신가
 손이서 主人드려 널오디 그리건가 호노라(結詞)

바로 앞에서 山中에는 벗이 없어, 讀書하며 古今 聖賢 豪傑들을 기리고, 그의 興亡과 志操에 대하여 느낀 然後에, 여기 醉興과 彈絃으로 眞仙같은 生活을 누려 險難한 世波를 잊어보려는 心情이 엿보인다.

그런데 緒論에서言及한 것처럼 松江의 歌辭를 評하면서, 모두 獨創的인 傑作이요, 劃期的인 最高峰의 作品이라고 讚辭를 아끼지 않았으나, 星山別曲만은 例外였다. 이제 그 까닭을 생각해 보자.

첫째는 完全한 創意的인 作品이 아니라는 點이다. 일찌기 金思燁님이 指摘한 것처럼 “息影亭에 모인 四仙—金成遠 林億齡 高敬命 鄭澈—이 「息影亭雜詠」이라 하여, 同一題目, 同一押韻에 지은 漢詩 二十首를 扮本으로 해서 그것을 敷衍 或은 奪胎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嚴密히 말하자면 松江의 創意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¹¹⁵⁾ 라는 까닭에서이다.

둘째는 宋純 俛仰亭歌의 模倣이라는 것이다. “鄭澈의 星山別曲은 內容, 形式, 風流, 語句 等 各部面에 걸쳐 宋純의 俛仰亭歌의 影響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卽 叙景的인 內容面에서 보거나 構成에 있어 四季節을 넣은 것이나, (이 경우 俛仰亭歌는 한 段落 안에 四季景物을 모두 包含시켰고, 星山別曲은 四季의 各一景적을 한 段落으로 獨立시킨 것이 다르다) 表現에 있어 類似한 手法을 쓴 것, 또는 辭說의 同一한 類型性, 語句 配置의 類似性 (특히 名詞·動詞·形容詞 等に 있어) 風流의 共通性 等 各 部面에 걸쳐 그 影響을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模倣 내지 翻案한 듯한 느낌마저 준다.”⁽¹¹⁶⁾ 라고 丁益燮님은 評하였다.

셋째, “漢字 語句 典故 等이 보다 많이 混用되어 있어 漢文 臭氣가 濃厚한 것”⁽¹¹⁷⁾ 이라는 것이다.

네째, “金成遠이란 一個人의 爲人的 稱頌, 星山이란 存在가 微微한 特殊한 一地域의 頌詠임에, 따라서 普遍性이 稀薄한 것”⁽¹¹⁸⁾ 이라는 등이었다.

그러나 金思燁님이 말한 것처럼 “別個의 價値를 認定치 않을 수 없다”⁽¹¹⁹⁾ 라고 한, 그 別個의 價値가 무엇이며, 星山別曲만이 지닌 어떤 價値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息影亭雜詠」, 漢詩 二十首를, 그대로 두지 않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自由自在로 驅使하여 漢文의 臭氣에서 벗어나려고 한 點은 認定할만한 價値일 것이다. 漢文學이 正統文學으로 生活化되었고, 漢文學에 造詣 깊은 松江의 當時의 時代背景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높이 評價해야 할 別個의 價値가 아닐까. 그리고 漢文 臭氣가 濃厚한 흠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漢文章을 國文으로 옮기려는 데에서 온 苦衷이었을 것이고, 當時의 識者들의 常用語라는 點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他 作品에 비겨 오히려 詩人으로서의 個性이나 生活이 더 잘 反映된 作品이다. 勿論 한 作品의 評價를 그 作品의 獨創性이나 藝術性에 두고 볼 때, 俛仰亭歌의 模倣이라고

(115)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 529

(116) 丁益燮, 湖南歌壇研究, 東國大 大學院 學位論文, p. 132

(117) 金思燁,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p. 530

(118) 同上

(119) 同上

까지 評을 받는 이 作品이 問題가 되나, 그러나 松江의 個性이나 生活이 그러하지 못했으면 그러한 作品이 나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의 詩人으로서의 個性이, 生活面이 純粹하게 豊富하게 反映된 作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 工巧한 表現味를 높이 評價해야 한다. 緒詞에 있어서도 松江 自身을 過客이라 하여 序頭를 始作했는데, 結詞 또한 自己를 假說의 人物로 登場시켜, 한 過客의 말로써 自己 詩想의 表現手段으로 삼은 것이라든지, 自然美를 눈에 보이듯이 如實히 描寫한 것이라든지, 世事와 功名을 一片浮雲인양 悠々自適하는 興趣 等은 巧妙한 表現味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李秉岐님의 見解대로 “星山別曲은 工巧스럽고”⁽¹²⁰⁾ 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一個人의 稱頌, 微々한 特殊地域의 頌詠이라고 하였으나,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歌辭製作의 動機가 棲霞堂의 生活에 대한 憧憬과 羨望에서 나온 것이라는 點을 생각하면, 오히려 情感에 넘치는 人間味를 엿볼 수 있고, 普遍性이 없는 特殊地域이라고 했으나 湖南歌壇의 母胎라고 할 수 있는 星山이며, 個人的으로는 꿈 많은 靑少年時節을 보낸 곳이며, 政治生活에서 失意에 빠졌을 때에는 唯一한 安息處가 된 星山이기에, 이곳의 自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그 自然美를 頌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 松江의 詩人으로서의 眞面目과, 人生觀, 自然觀이 돋보이는 作品으로서 再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VI. 結 論

1. 星山別曲 研究의 概要

星山別曲은 松江이 棲霞堂 金成遠의 生活에 대한 憧憬과 羨望에서, 星山の 아름다운 四季 勝景의 變化와, 그 主人公의 悠々自適하는 生活, 곧 讀書, 醉興, 彈絃의 風流를 노래한 叙景的인 歌辭다. 그런데 松江의 歌辭를 評하면서 모두 獨劑的인 傑作이요, 劃期的인 最高峰의 作品이라고 讚辭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星山別曲만은 例外였었다.

여기에 내 고장에서 이루어진 이 作品의 價値를 생각해 보며, 이 作品에 나오는 地名·名所 等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註解하는 데에 問題點이 있고 하여 本 小論을 試圖한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이 歐辭가 나오기까지의 遠因이 된 背景으로서의 湖南地方의 詩歌活動을 살펴 보고, 이어서 直接的인 原因이 된 息影亭의 星山歌壇과, 이 星山 周邊의 歌壇 구실을 한 關聯 亭閣들과, 여기에 出入한 關聯 人物들을 알아 봄으로써 星山別曲이 나오게 된 意

(120) 李秉岐 白鐵, 國文學全史, p 123

義를 찾아 보았다. 그리고 松江의 抒情詩人으로서의 面貌와, 星山生活과의 關聯을 爲主로 作者考를 하였고, 여러가지 異見들이 있는 製作年代에 대해서 筆者의 見解를 밝히며, 이 고장의 地名과 名所를 잘 알지 못한 데에서 온 그릇된 註解를 바로 잡아, 星山別曲을 제대로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內容考에 있어서 그 構成과 表現을 爲主로 星山別曲만이 지니는 어떤 價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것이다.

2. 星山別曲의 評價

첫째, 漢文學이 正統文學으로서 生活化되었던 當時에, 漢文學에 造詣가 깊었던 松江이 漢詩로 된 「息影亭雜詠」二十首를 그대로 두지 않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自由自在로 驅使하여 漢文의 臭氣에서 벗어난 星山別曲을 마련한 것은 認定할 만한 價値가 될 것이다.

둘째 松江의 他 作品에 비겨 오히려 그 詩人으로서의 個性과 生活이 더 純粹하게 豊富하게 反映된 作品인 것이다. 寫實的인 表現을 통해 風流가 넘치는 個性과, 憧憬하는 理想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生活의 斷面 等を 迫眞感있게 描寫하고 있다.

셋째, 工巧한 表現味를 높이 評價해야 한다. 假說의 人物 過客을 登場시켜, 自己 詩想의 表現手段으로 삼은 것이라든지, 自然美의 描寫, 悠々自適하는 興趣 等は 巧妙한 表現味라 아니 할 수 없다.

네째, 險難한 政治生活, 골치 아픈 東西 分黨의 渦中에서 어찌할 수 없이 官界에 投身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마음은 恒常 功名을 浮雲처럼 여기는 詩人으로서의 淸淨한 人生觀이었고, 마음 속 깊이 思慕하는 棲霞堂에 대한 憧憬과 羨望은 그의 情感넘치는 人間味를 돋보이게 한 것이다.

다섯째, 湖南歌壇의 母胎가 된 星山이며, 個人的으로는 꿈 많은 靑少年時節을 보낸 곳이며, 政治 生活에서 失意에 빠졌을 때에는 언제나 찾았던 唯一한 安息處가 된 星山에 대한 사랑, 그 自然美의 頌詠 等は 그의 豐盛하고 아름다운 自然觀과 詩人으로서의 眞面目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高麗史 卷七十一 樂志
 洪萬宗 旬五志
 金萬重 西浦漫筆
 權 釋 石洲集 別集
 金春澤 北軒集

- 象村集
 玉峰集
 宣祖實錄
 乙巳傳聞錄
 俛仰集
 瀟灑園事實
 松江集
 不憂軒集
 新增東國輿地勝覽
 光州邑誌
 昌平邑誌 息影亭
 青丘永言
 海東歌謠
 歌曲源流
 金成遠 棲霞堂遺稿
 朴履和 龜溪集
 朴淳愚 明村遺稿
 朴士亨 青狂集
 韓國人名大事典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趙潤濟 韓國文學史
 // 朝鮮詩歌史綱
 金思樺 李朝時代의 歌謠研究
 // 改稿國文學史
 朴魯春·丁益燮·金聖培·李相寶 編著 註解歌辭文學全集
 朴晟義 松江·蘆溪·孤山의 詩歌文學
 // 松江歌辭
 丁益燮 龜溪 朴履和의 歌辭攷(韓國言語文學 第2輯)
 // 李緒의 樂志歌考察(국어국문학 제24호)
 // 流配文學小攷(梁柱東博士華誕紀念 論文集)
 // 湖南歌·回文山踏山歌·慶福宮歌·訓蒙歌(全南大 語文論集 第4號)
 // 李朝時代 全南地方의 歌壇研究(全南大 論文集 第18輯)

- ” 湖南詩歌活動의 背景攷(湖南文化研究 第5輯)
- ” 湖南歌壇研究(東國大 大學院 學位論文)
- 李丙疇 鄭松江과 그의 歌辭(새국어교육 제11호)
- 李家源 萬憤歌研究(東方學志 第6輯)
- 金東旭 壬亂前後歌詞研究(震檀學報 第25, 6, 7合併號)
- 李相寶 關西別曲研究(국어국문학 제26호)
- ” 楊士俊의 南征歌 新攷(국어국문학 제62~63호)
- 李鍾出 魏世寶의 金塘別曲攷(국어국문학 제34~35호)
- ” 止止齋 李商啓의 歌辭攷(국어국문학 제33호)
- ” 盧明善의 天風歌(韓國言語文學 第4輯)
- ” 魏伯珪의 農歌(朝鮮大師大 論文集 第1輯)
- 徐首生 松江의 星山別曲 創作年代是非(語文學 第24號)
- 金聖培 明村 朴淳愚의 金剛別曲(梁柱東博士華誕紀念 論文集)
- 金瑋永 枕肱歌辭에 대하여(국어국문학 제20호)
- 金俊榮 井邑郡民亂時間巷聽謠(국어국문학 제29호)
- 崔勝範 湖南歌에 대한 小考(全北大 論文集 第9輯)
- 李泰極 歌辭註釋 花歌武豪歌 高嶺鎮民善政歌(국어국문학 제25호)
- 河聲來 完山歌(韓國言語文學 第5輯)
- ” 鄭枋의 孝子歌攷(韓國言語文學 第10輯)
- ” 鄭勳의 水南放翁歌(文學思想 通卷8 第5號)
- 具壽榮 尹爾厚의 逸民歌研究(東岳語論文集 第7輯)
- 崔夢龍 榮山江湄 工事로 인한 水沒地區의 先史遺蹟(全南大 湖南文化研究 6輯)
- 朴培洪 無等山一由來·傳說·景觀(全南每日 出版局)